

초능력자 남성 주인공과 멜로드라마 캐릭터의 확장

— 텔레비전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별에서 온 그대>를 중심으로

백경선*

<차례>

1. 판타지와 결합한 멜로드라마 속 남성 주인공
2. 여성 욕망의 '대상'으로서 초능력자 남성 주인공
 - 2.1. 불로(不老)의 연하남과 시각적 즐거움
 - 2.2. 은둔형 순정남과 상상적 즐거움
3. 남성 주인공에게 부여된 초능력 판타지의 의미와 한계

<국문초록>

텔레비전 멜로드라마는 초능력을 지닌 남성 주인공을 통해 신자유주의 체제 여성 시청자들이 욕망하는 보다 완벽한 남성상을 재현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초능력이라는 판타지와 결합한 멜로드라마 속 남성 주인공의 캐릭터는 완벽한 남성상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같은 문제에 접근하여 결론을 구하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먼저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별에서 온 그대>의 남성 주인공이 이 시대 여성들이 욕망하는 남성상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 그로부터 여성 시청자들이 얻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멜로드라마의 남성 주인공에게 부여된 판타지의 의미와 한계가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두 드라마에서 초능력을 지닌 남성 주인공들은 우선 미소년 이미지의 연하남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여성들의 '젊음'에 대한 욕망을 투영한 것이다. 또한 여성 주인공만 바라보는 은둔형의 순정남 이미지를 통해 여성들의 '낭만적 사랑'에 대한 욕망이 반영된다. 이와 같은 여성 욕망의 대상으로서 초능력자 남성 주인공은 여성 시청자들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상상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한편, 남성 주인공의 초능력은 공적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지 못하고 지극히 사적인 멜로 영역에 머문다. 멜로드라마의 남성 주인공에게 부여된 초능력 판타지는 전복성을 띠지 못하고 멜로 장르의 관습에 전유된 것이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강사

결국 초능력을 지닌 남성 주인공은 멜로드라마 남성 캐릭터의 진화라기보다는 캐릭터의 변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멜로드라마 장르의 변주 및 확장을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주제어: 남성 주인공, <너의 목소리가 들려>, 멜로드라마/로맨스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상상적 즐거움, (은둔형의) 순정남, 시각적 즐거움, 여성 욕망, 연하남, 초능력, 텔레비전드라마, 판타지

1. 판타지와 결합한 멜로드라마 속 남성 주인공

로라 멀비(Laura Mulvey)는 「시각적 즐거움과 서사 영화」라는 그녀의 글을 통해 주류 할리우드 영화에서 보는 즐거움은 남성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남성은 보는 것에서 즐거움을 취하는 반면 여성은 보는 대상이 되기 위해 스크린 앞에 있다고 한다. 보는 것과 즐거움의 과정에서 남성이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는 반면, 여성은 수동적인 역할을 취한다는 것이다.¹⁾ 이 같은 멀비의 논의대로라면 “모든 관객성은 남성 전유물 처럼 보인다.”²⁾ 하지만 멜로드라마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애정담론으로서의 멜로드라마³⁾는 여성 관객들을 주 대상으로 한 “여성용 장르”⁴⁾인만큼 그것의 대다수 소비자는 여성이다.⁵⁾ 여성 시청자들은 적극적으로 멜로드

1) 로라 멀비의 논의에 대한 부분은 다음을 참고함. Richard Rushton & Gary Bettinson, 이형식 옮김, 『영화이론이란 무엇인가』, 명인문화사, 2013, 99-105면.

2) Richard Rushton & Gary Bettinson, 위의 책, 105면.

3) “18세기부터 19세기에 유럽에서 유행한, 음악이 혼합된 연극”(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인한 멜로드라마는, “예기치 않은 우연한 상황의 등장과 비극적 정서의 과장으로 눈물을 자아내게 구성된 서사 양식”(윤석진, 『한국 멜로드라마의 근대적 상상력』, 푸른사상, 2004, 23-24면.)으로서 주로 대중극/통속극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멜로드라마를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로맨스드라마’로 한정한다.

4) 유지나 외, 『멜로드라마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9, 9면.

5) 이는 본고의 분석 대상인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별에서 온 그대>의 주 시청층이 여성 시청자였다는 다음의 시청률 조사 결과를 봐도 확인할 수 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전국 기준 평균 가구 시청률은 19.1%로 2013년 방송된 수목드라마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 올해 수목드라마 시청률 1위를 차지한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주 시청자층은 여자 40대

라마를 소비하며, 특히 남성 주인공을 대상화하여 (멀비의 주장과 달리) 보는 주체로서 즐거움을 취한다. 멜로드라마의 남성 주인공은 ‘백마 탄 왕자님’에 대한 여성 시청자들의 “욕망의 현현”⁶⁾으로서, 여성 시청자들은 멜로드라마의 남성 주인공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고 현실의 결핍을 보상 받는다. 때때로 여성 주인공의 캐릭터가 허술할 때, 그들은 여성 주인공에게 감정이입/동일시를 생략한 채 마치 게임을 하듯 직접적으로 남성 주인공과 접촉하기도 한다. 그만큼 텔레비전 멜로드라마의 여성 관극성과 즐거움은 상당 부분 남성 주인공에서 기인한다.

여성 시청자들에게 제공된 즐거움의 근원, 텔레비전 멜로드라마 속 남성 주인공은 크게 두 가지 캐릭터로 구분된다. 하나는 정통 멜로에 등장하는 재벌 2~3세들이다. <파리의 연인>(SBS, 2004)의 한기주(박신양 분)에서 <시크릿 가든>(SBS, 2010~2011)의 김주원(현빈 분), <상속자들>(SBS, 2013)의 김탄(이민호 분)으로 이어지는 ‘김은숙 작가표’ 재벌 2~3세들이 대표적이다. 그들은 대부분 오만하고 까칠하고 차갑지만, 그 자신이 사랑하는 한 여성에게만큼은 다정한 ‘순정남’으로 그려진다. 또 다른 하나는 멜로드라마와 전문직드라마가 결합된 장르에 등장하는 능력 있는 전문직 종사자이다. 남성 주인공들은 주로 의사, 변호사, 요리사(셰프) 등 소위 ‘샤자’ 들어가는 직업에 종사하며,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능력남’으로 묘사된다.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직업은 의사로, <외과의사 봉달희>(SBS, 2007)의 안중근(이범수 분), <뉴하트>(MBC, 2007~2008)의 이은성

(18.9%), 여자 50대(13.9%), 여자 10대(13.0%)로 나타났다.”(TNmS 홈페이지 보도자료, 「TNmS 시청률 <너의 목소리가 들려> ‘마지막 회’ 8월 1일, 2013.8.2. 밑줄-인용자) <‘별에서 온 그대’의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평균 시청률은 전국 22.6%, 수도권 27.0%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수목드라마 1위 자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으며, 여자 40대(25.3%), 여자 10대(20.7%), 여자 30대(20.0%)에게 인기가 높은 드라마였다.”(TNmS 홈페이지 보도자료, 「TNmS <별에서 온 그대> ‘마지막 회’ 2월 27일 자체 최고 시청률 기록, 2014.2.28. 밑줄-인용자)

6) Rosemary Jackson,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4, 241면.

(지성 분), <닥터스>(SBS, 2016)의 홍지홍(김래원 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들은 모두 최고의 실력과 함께 따뜻한 인간미까지 갖춘 완벽한 남성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2010년대 이후 텔레비전 멜로드라마는 재벌 2~3세나 능력 있는 전문직 종사자를 뛰어넘는 더욱 완벽하고 이상적인 남성 주인공을 소환한다. <해를 품은 달>(MBC, 2012)의 이훤(김수현 분), <너의 목소리가 들려>(SBS, 2013)의 박수하(이종석 분), <별에서 온 그대>(SBS, 2013~2014)의 도민준(김수현 분), <아이언맨>(KBS2, 2014)의 주홍빈(이동욱 분), <W>(MBC, 2016)의 강철(이종석 분), <도깨비>(tvN, 2016~2017)의 김산(공유 분) 등이 그렇다. 이들은 가상시대의 왕, 초능력자, 외계인, 만화 속 주인공, 도깨비 등으로 역사를 초월하고 심지어 인간(의 조건)을 초월한다. 멜로드라마 속 남성 주인공은 점점 더 과감하게 현실과 상식을 뛰어넘어 판타지와 결합한 것이다.

판타지는 “작품을 구성하는 어떤 특징적인 ‘요소’에 의해 규정되어 왔는데, 현실적 법칙과는 무관하”⁷⁾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다. 이 글에서 판타지는 “과학이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합리적 현상이 등장하는 경우”⁸⁾를 가리킨다. 판타지의 그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제외하면 드라마 속 광경은 현실의 질서와 법칙을 따르고 있다. 텔레비전드라마에서 판타지는 드라마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장치로 작동하는 것이다.⁹⁾

“리얼리티에 근거한 이야기 구조를 따르되 리얼리티만으로 도저히 해결

7) 최기숙, 『환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13면.

8) 최기숙, 위의 책, 14면.

9) “텔레비전드라마에서 판타지는 환상(성)이란 용어와 혼용되면서 그 의미의 진폭이 달라진다. 환상(성)은 비록 실현 가능성이 아주 미약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상(理想)이나 대중 욕망으로서의 의미를 내포한다. 판타지의 개념을 이와 같이 넓게 확장한다면, 신데렐라 이야기를 비롯해 가족 판타지까지 거의 모든 텔레비전드라마에서 판타지를 찾을 수 있다. 텔레비전드라마 자체가 거대 판타지인 셈이다.”(백경선,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에 나타난 판타지의 유형과 의의』, 『한국문예비평연구』 제58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8, 218면.) 본고에서는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상, 즉 대중 욕망과 판타지를 구분하기로 한다.

할 수 없는 욕망과 캐릭터를 다뤄 수용자를 만족시키는 시대가 왔다.”¹⁰⁾ 신자유주의 시대에 경쟁의 무한함은 개인 능력의 무한함을 요구하고 그것은 급기야 ‘초(超)능력을 요구하게 된다. 여성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무한 경쟁하는 멜로드라마 속 남성 주인공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욕망이 상승된 여성 시청들에게 선택 받기 위해 초능력자가 되었다. 본고는 멜로드라마 속 판타지 요소가 부여된 남성 주인공 중 특히 초능력을 지닌 남성 주인공에 주목하고자 한다.¹¹⁾

초능력자 남성 주인공이 등장하는 멜로드라마 중 본고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¹²⁾와 <별에서 온 그대>¹³⁾를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두 드라마는 초능력이란 판타지 요소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현실의 질서와 법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연성을 구축하고, 그로 인해 현실 세계와 이질감이 크게 없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¹⁴⁾ 또한 두 드

-
- 10) 박은아, 「TV드라마 속 남성 캐릭터 연구: <별에서 온 그대> 인물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6면.
- 11) 한편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SBS, 2010), <주군의 태양>(SBS, 2013), <냄새를 보는 소녀>(SBS, 2015), <푸른 바다의 전설>(SBS, 2016~2017) 등에는 여성 주인공이 초능력자로 등장한다. 구미호(신민아 분), 태공실(공효진 분), 오초립(신세경 분), 심청(전지현 분)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 드라마에서는 초능력을 지닌 여성 주인공에 의해 남성 주인공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별에서 온 그대>가 초능력을 지닌 남성 주인공의 도움으로 여성 주인공이 성장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남성의 성공/성장에 방해가 되거나 남성의 도움만 받던 여성 주인공이 남성의 성장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여성 캐릭터가 진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성 주인공의 역할이 내조(헌신과 희생)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적 현모양처의 모델을 제시한 과거 가족멜로드라마의 여성 캐릭터로 퇴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 12) 박혜련 극본, 조수일 연출, SBS, 총18부작, 2013.6.5.~2013.8.1.
- 13) 박지은 극본, 장태유 연출, SBS, 총21부작, 2013.12.18.~2014.2.27.
- 14) <별에서 온 그대>는 남성 주인공이 외계인이라는 점에서 남성 주인공이 도깨비라는 초월적 존재로 등장하는 <도깨비>와 유사하다. 다만 <별에서 온 그대>가 비록 외계인을 등장시키지만 그를 초월적 존재보다는 초능력을 지닌 인간처럼 현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반면, <도깨비>는 현실의 질서와 법칙을 벗어나 신의 세계를 전제하면서 비현실적으로 남성 캐릭터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과학적 논리를 배제한 초월적 존재보다 초능력자라는 점에 주목하여 남성 주인공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고는 <도깨비>를 제외하였다. 한편 <별에서 온 그대>를 분석함으로써 <도깨비>의 남성 주인공

라미는 남성 주인공이 초능력자라는 점 외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함께 논의하기에 적합하다. 먼저 두 드라마는 다양한 장르가 결합된 형태를 보인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별에서 온 그대>는 남녀 주인공의 로맨스를 기본으로 하되, 거기에 남성 주인공의 초능력을 통해 판타지가 결합되고, 남성 조연의 악한 행동을 통해 스릴러가 결합된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경우, 법정을 주 무대로 하면서 법정 드라마 장르도 추가 결합된다. 둘째 두 드라마에는 여성 주인공을 사이에 두고 남성 주인공과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는 제2의 남성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캐릭터에서도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남성 주인공과 동일한 대상(여성 주인공)을 욕망한다는 측면에서 남성 주인공의 적대자이지만, 기존 멜로드라마의 삼각관계에서 보여주는 악역의 모습과는 다르다. 두 드라마를 스릴러 장르이게 하고 극적 긴장감을 형성케 하는 반동인물이자 악역은 제2의 남성 주인공이 아니라 또 다른 남성 조연이다. 두 드라마의 제2 남성 주인공은 기존 멜로드라마 속 제1 남성 주인공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차관우(윤상현 분)는 능력 있고 인간성까지 좋은 변호사이며, <별에서 온 그대>의 이휘경(박해진 분)은 한 여자를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펼치는 재벌 2세이다. 기존 멜로드라마에서는 제1 남성 주인공을 차지할 법한 캐릭터이지만, 그들은 여성 주인공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그들보다 더 완벽하고 잘난 남성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려난 것이다.

이와 같은 두 드라마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별에서 온 그대>가 이 시대 여성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남성상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멜로드라마의 남성 주인공에게 부여된 초능력 판타지의 의미와 한계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능력이란 판타지 요소와 결합한 텔레비전 멜로드라마의 남성

주인공의 캐릭터가 진정으로 진화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궁극의 목표이다. 물론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별에서 온 그대>만 가지고 그것을 단정 짓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두 드라마의 대중성과 화제성¹⁵⁾을 기반으로 두 드라마에 대표성을 부여하여 대푯값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한편, 두 드라마가 여성 시청자들의 욕망의 대상으로서 초능력자 남성 주인공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2장에서는 ‘시각적 즐거움’과 ‘상상적 즐거움’이란 개념을 통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멀비의 논의에서 차용한 시각적 즐거움은 남성 캐릭터를 매력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시각화·이미지화함으로써 여성 시청자가 (이)성적 대상을 보는 데서 얻는 즐거움을 말한다. 상상적 즐거움이란 욕망의 대상인 남성 캐릭터와 그를 보는 여성 시청자 간에 상상적 이성애 관계가 형성되면서 발생하는 즐거움을 말한다. 욕망의 대상화가 상상의 연인이 되는 이 즐거움은 흡사 게이머가 게임을 하는 동안 가상세계를 실제로 착각하며 느끼는 게임적 즐거움과 유사하다.

2. 여성 욕망의 ‘대상’으로서 초능력자 남성 주인공

“프로이트에 따르면, 예술품의 창조는 본능적인 충족을 포기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인간에게 제공되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행위”¹⁶⁾라고 한다.

15)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한 자리 시청률로 시작하지만 2회에서 바로 두 자리로 상승, 3회에서는 두 배로 상승하는 등 회를 거듭할수록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꾸준히 시청률 상승세를 이어갔다. 마지막 18회에서는 전국 기준 26.2%, 수도권 기준 29.0%(TNmS 시청률 조사 결과)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2013년 광고주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 드라마 부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별에서 온 그대>는 4회 만에 시청률 20%를 돌파하면서 매회 화제를 양산하며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 마지막 21회에서는 전국 기준 28.1%, 수도권 기준 33.2%(TNmS 시청률 조사 결과)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종영 후에는 중국에서 <대장금>만큼이나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 결과 2015년 방송 대상 한류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텔레비전드라마야말로 보상으로써의 환상을 만들어낸 최적의 결과물이다. 여성들은 백마 탄 왕자님을 욕망하지만, 애석하게도 현실에 백마 탄 왕자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텔레비전드라마 속에서 그 왕자님을 좇으며 현실의 결핍을 보상 받는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박수하와 <별에서 온 그대>의 도민준은 초능력이라는 판타지 요소가 부여되면서 그야말로 현실의 결핍에 대한 ‘환상적인’ 보상이 된다. 그들은 판타지와 결합하면서도 할리우드 스타일의 영웅이 아닌 멜로서사의 왕자님으로 소환된다. 이 장에서는 그들이 여성들의 욕망을 어떻게 대상화하였으며, 또한 여성 시청자들에게 어떠한 판타지적 즐거움을 선사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1. 불로(不老)의 연하남과 시각적 즐거움

박수하와 도민준은 여성 시청자들의 욕망을 어떻게 대상화하였을까. 이를 논하기 위해 먼저 두 인물의 유사점을 다음(표 1)과 같이 4가지 기준으로 정리해 보았다.

기준	박수하와 도민준의 유사점
외모	젊고 잘 생김(둘 다 미소년의 외모를 지님). 특히 고등학생 박수하는 여성 주인공보다 9살 연하이고, 도민준은 400년 동안 늙지 않고 20대의 몸을 유지하는 불멸의 존재임.
부(富)	박수하는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과 부모님의 유산을 소유하고 있어 비록 어리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음. 도민준은 초능력을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해 일찍이 사둔 잠실별과 압구정 땅으로 재벌급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

능력	박수하는 마음만 먹으면 경찰대도 문제없을 정도로 머리가 좋으며, 도민준은 400년 동안 의사, 변호사, 대학 강사 등 전문직을 두루 섭렵하면서 지성과 교양과 예술적 감수성까지 쌓음. 무엇보다 두 인물은 초능력 을 지니고 있음.
가족 관계 및 인간 관계	가족관계 無. 박수하는 어려서 고아가 되어 가족이 없고, 도민준은 세계에서 홀로 지구에 왔기에 가족이 없음. 인간관계 역시 거의 無. 어릴 적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트라우마로 인해 박수하는 인간관계가 거의 없고, 지구에서 떠날 날만 고대하는 도민준의 인간관계는 그를 돕는 변호사가 유일함. 특히 초능력은 두 인물이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데 결정적 요소로 작용함.

〈표 1〉 박수하와 도민준의 유사 속성

위의 4가지 항목 중 가족관계 및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절에서는 외모와 부(富), 능력에 주목하기로 한다. 잘 생긴 외모와 재력, 능력은 멜로드라마 속 남성 주인공들의 필수조건이다.¹⁷⁾ 그런데 두 드라마에서는 남성 주인공의 매력이 기존 멜로드라마보다 더욱 강화된 부분이 있다. 바로 여성 주인공보다 10살 가까운 연하이거나, 400년 동안 늙지 않고 20대의 몸을 유지하며 영원한 젊음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그리고 초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외모의 ‘젊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박수하와 도민준을 연기한 이종석과 김수현이란 배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종석과 김수현은 고전적인 미남형이 아니다. 동안에 작은 얼굴과 마른 체격을 지닌 두 배우는 순정만화 속 미소년 같은 분위기를 발산하는데, 이는 남성보다 여성 시청자의 욕망과 관계한다. 다음은 배우 이종석의 판타지

17)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한국 텔레비전드라마 팬 사이트에 올라오던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십계명’에서는 남성 주인공에 대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남, 부자, 까칠하다(십계명 중 1번). 재벌2세인 남자는 외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악기와 스포츠에 능하며, 모델 같은 몸매이다(십계명 중 3번). 유럽의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십계명’에 대한 것은 홍석경, 『세계화와 디지털 문화 시대의 한류』, 한울아카데미, 2013, 258-260면을 참조하였다.

적인 성향에 대해 언급한 글의 일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새하얀 피부와 분홍빛 입술, 기다란 키와 마른 편에 가까운 몸까지 이 종석은 입체감이 돋보이는 대신 놀라울 정도로 2D에 가까운 이미지를 그려내는 배우였고, 때문에 지금까지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판타지적인 설정을 연기해왔다. (.....) 겉모습은 앳된 소년이지만 마음을 읽는 능력 덕분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혜성의 심정을 알아주고, 철은 들 만큼 들었지만 혜성을 위해 작은 곰인형에 메시지를 녹음했다가도 부끄러워 건네주지 못하는 등 연애와 사랑에는 아직 서툰 박수하의 캐릭터는 연하남 판타지를 완벽하게 충족시킨다.¹⁸⁾ (밑줄-인용자)

위의 인용문에 명시된 것처럼, 박수하를 연기한 이종석은 “새하얀 피부와 분홍빛 입술”에 “기다란 키와 마른 편에 가까운 몸”을 지녔다(〈사진 1, 2〉). 그는 외모 자체가 판타지에 어울리는 이미지이고, 특히 “앳된 소년” 같은 겉모습 때문에 여성 시청자들이 쉽게 꿈꿀 수 없는 9살이나 어린 “연하남 판타지”를 완벽하게 만들어낸다.



〈사진 1〉 박수하 역의 이종석



〈사진 2〉 박수하 역의 이종석

한편, <별에서 온 그대>의 연출을 맡은 장태유 감독은 배우 김수현에

18) 황효진, 「〈시크릿 가든〉부터 〈W〉까지, 이종석의 판타지」, 『아이즈(ize)』, 2016.8.11. (<http://ize.co.kr/articleView.html?no=2016080800077249790>, 2018.7.31검색)

대해 “젊음과 아름다움이 돋보이면서도 내적인 카리스마와 깊이가 있다”라고 평한 바 있다. 김수현은 아기 같은 얼굴에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다. 울거나 혹은 웃을 땐 아기 같다가도 무표정일 때는 차갑고 진중한 모습을 띠는 김수현은 소년과 남성, 귀여움과 진중함 사이를 묘하게 오간다 (<사진 3, 4>).



〈사진 3〉 도민준 역의 김수현



〈사진 4〉 도민준 역의 김수현

박수하와 도민준의 남성성은 소년성에 가깝다. 그들을 연기한 배우 이종석과 김수현의 미소년 같은 외모는 그 특성을 배가시킨다. 미소년의 이미지와 신비로운 이미지는 그들을 ‘어린 왕자로 소환한다.’¹⁹⁾ 그들은 선이 굵고 남자답고 어른스러운 남성 이미지보다는 선이 여리고 아름답고 미소년 같은 이미지를 지닌다. 고등학생과 교복이라는 기표는 박수하를 그야말로 ‘어린 연하남’의 이미지로 각인시킨다. 날씬한 슈트 라인과 자전거, 백팩은 영원히 20대의 몸을 유지하는 도민준의 ‘불로(不老)’의 젊음을 이미지화한다.

돈이면 다 되는 자본주의 시대에 외모의 아름다움도 성형수술을 통해 돈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여전히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19) ‘어린 왕자’ 이미지는 남성 주인공을 육체적/성적(性的) 대상화로 만들어 소비하는 것을 약화시킨다. 두 드라마에도 남성 주인공의 몸을 노출시킴으로써 성적 대상화로 소구하는 장면(이를 테면 샤워 장면)이 등장한다. 샤워 장면을 통해 보여준 박수하와 도민준의 몸은 미소년의 얼굴과 달리 완벽한 어른 남성의 것이지만, 옷을 입은 그 순간 그 몸은 기억 속에 후경화되고 미소년의 얼굴이 화면 가득 전경화된다.

바로 영원한 젊음이다. 돈으로 노화를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보다 젊음에 대한 욕망이 훨씬 간절하다.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해진다. 그런 점에서 9살이나 어린 남성이나 영원히 늙지 않고 20대로 살아가는 남성은 특히 중장년의 여성 시청자들에게 최고의 매력적인 캐릭터일 수밖에 없다. 이는 시청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각주7에서 언급한 것처럼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주 시청층은 여성 40대가 18.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여성 50대가 13.9%, 여성 10대가 13.0%를 차지한다. 또한 <별에서 온 그대>의 주 시청층은 여성 40대가 25.3%, 여성 10대가 20.7%, 여성 30대가 20.0%를 차지한다(<표 2> 참고). 두 드라마의 주요 여성 시청층이 모두 40대라는 것이 눈에 띈다. 그것도 1위와 2위의 시청률 격차가 2위와 3위의 격차보다 두드러지게 크게 나타난다. 특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주요 여성 시청층은 40~50대로 <별에서 온 그대>보다 훨씬 더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다. 박수하가 도민준보다 더욱 어린 연하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결과는 어리고 젊은 남성을 보고자 하는 여성 시청자의 욕망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여성, 특히 중장년층의 여성에게 영원한 젊음은 그녀 자신이 꿈꾸는 판타지이다. 어린 연하남, 나이가 불로의 젊음을 통해 시각적 즐거움을 얻는 것을 넘어, 여성 시청자들은 그들과 가상의 연애/사랑에 빠지면서 그 순간은 그녀 자신도 남성 주인공에 상응해 젊어졌다는 환상, 즉 상상적 즐거움에 빠지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논할 것이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별에서 온 그대〉		
순위	주 여성 시청층 및 시청률	평균 시청률	순위	주 여성 시청층 및 시청률	평균 시청률
1	40대-18.9%	19.1%	1	40대-25.3%	22.6%
2	50대-13.9%		2	10대-20.7%	
3	10대-13.0%		3	30대-20.0%	

〈표 2〉 주 여성 시청층 순위 (TNmS 시청률 조사 결과)

9살이나 연하인 데다가 극 중 대부분 고등학생으로 등장한 박수하와 20대 후반의 젊은 시간 강사 도민준은 어리고 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에서 꽤 자유롭다. 어리고 젊기 때문에 그들의 재력은 더욱 두드러진다. 비록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지만 박수하는 부모님의 유산과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 덕분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고, 도민준은 초능력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비롯한 막대한 부를 쌓았다. 특히 대학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톱스타인 여성 주인공이 사는 고급 빌라에 살고 있는 도민준은 재벌 2~3세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게 그려진다. 도민준의 고급스럽고 멋진 집은 그의 매력을 상승시키면서 여성 시청자들의 시각적 즐거움도 높여준다.

박수하와 도민준은 외모와 재력은 물론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4백 년 동안 의사, 변호사, 대학 강사 등 전문직을 두루 섭렵하면서 지식과 교양을 쌓은 박수하는 그야말로 능력자이다. 특히 도서관을 방불케 하는 서재가 상징하듯 도민준이 갖고 있는 지식의 양은 방대하다. 박수하는 태권도 유단자로 싸움도 잘하고 머리도 좋다. 고등학교를 자퇴했지만 마음만 먹으면 경찰대학도 단번에 붙는다. 무엇보다 기존 멜로드라마 속 재벌 2~3세나 능력 있는 전문직 종사자를 능가하는 그들의 최고 능력은 ‘초능력’이다.²⁰⁾ 박수하는 상대의 눈을 보면 그 마음을 읽어내는 초능력을 지니고 있다. 도민준은 더욱 막강하다. 400년 전 UFO를 타고 지구에 온 외계인인 도민준은 존재 자체가 판타지이다. 지구에 처음 왔을 때의 모습 그대로 10년마다 신분을 바꾸며 살아가고 있는 불로, 불멸의 존재인 그는 뱀파이어를 연상케도 한다. 게다가 인간보다 감각이 7배나 예민한 그는 때의 시력과 늑대의 청력을 지녔으며, 시간을 멈추거나 순간이동을 하는 등의 초

20) 최지운은 상속자 캐릭터나 천재 캐릭터에 변주를 가한 초능력 캐릭터가 최근 멜로드라마 남성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보다 완벽한 형태의 신데렐라 드라마를 표방하기 위한 계산에서 비롯된다”라고 보았다. 최지운, 『로맨스드라마 속 남자주인공의 재력 획득 방법 분류 및 함의 연구』, 『영상문화콘텐츠연구』 제13집,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2017, 47면.

능력까지 발휘한다.

박수하와 도민준의 초능력은 어리고 젊은 그들을 소년에서 '남자로' 전환한다. 초능력이란 판타지를 통해 남성다움이 부여된 그들이 여성 시청자들에게 선사하는 즐거움은 시각적 즐거움에서 상상적 즐거움으로 전환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다.

2.2. 은둔형 순정남과 상상적 즐거움

현실에 있을 수 없는 박수하와 도민준은 현실 너머 '저기'에 존재한다. 그런 그들은 여성 주인공 장혜성(이보영 분)과 천송이(전지현 분)의 불완전함과 만나면서 현실의 '여기'로 편입된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별에서 온 그대>의 여성 주인공인 장혜성과 천송이는 각각 변호사이고 톱스타(여배우)이다. 기존 신데렐라형 멜로드라마 속 여성 주인공들의 조건이 평범하거나 혹은 그 이하였다면, 두 드라마 속 여성 주인공은 신분 상승을 하였다. 하지만 그녀들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고 빈틈을 지니고 있다. 천송이의 경우 아름다운 외모를 뽐내는 최고의 여배우이지만 단순하고 무식하며, 장혜성은 국선 전담 변호사이지만 속물근성이 다분하다. 이 같은 여성 주인공의 불완전함은 남성 주인공의 초능력으로 인해 완전함으로 탈바꿈한다. 변호사이고 최고의 여배우이더라도 남성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기존 신데렐라형 멜로드라마 속 여성 주인공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시사한다. 남성 주인공의 초능력은 여성의 불완전함으로 말미암아 기능을 발휘하면서 사랑이라는 사적 범주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앞 절에서 박수하와 도민준의 공통점 중 언급하지 않았던 네 번째 항목, 가족관계 및 인간관계의 단조로움을 논의의 장으로 불러오자. 무한경쟁 시대에 젊은이들이 점점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면서 '1인 가족'이 급증하고 있다. 박수하와 도민준이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음은 흥미

로운 지점이다. 박수하가 거리를 돌아다닐 때 항상 ‘헤드폰’을 착용한다는 점, 도민준이 대부분의 시간을 그의 ‘서재’에서 보낸다는 점 등이 그들의 고립과 단절을 대변한다. 고등학교를 다니다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본 박수하의 인간관계는 단조롭기 그지없고, 지구를 떠나는 날만 고대하는 도민준의 인간관계 역시 장영목 변호사(김창완 분)가 유일하다. 그들은 초능력 때문에 세상과 철저히 단절되어 살아 왔다. ‘은둔형’ 초능력자들이 초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운명의 연인²¹⁾을 만났을 때이다.

그런데 10년 동안 한 여인을 기다리며 순애보적인 면모를 보여준 박수하와 달리 도민준은 사랑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대학에서 사랑에 대한 사회심리학을 강의하고 있는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들이 말하는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건 결국 호기심, 질투, 성욕, 소유욕, 연민, 의리, 습관 내지는 착각 같은 거라고 믿었다. 그런 그가 지구를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천송이를 만나 진정한 사랑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의 초능력이 비로소 발휘된다.

도민준의 초능력은 철저히 400년 만에 환생한 운명의 여인인 천송이만을 위해 사용된다. 천송이가 필요로 하는 물건(예를 들어 치킨을 먹을 때 휴지)을 손 안대고 그녀 근처로 옮겨 놓고, 벽 너머로 그녀의 앓는 소리를 듣고 병원에 데려다 주고, 그녀에게 키스하기 위해 시간을 정지시킨다. 스파이더맨이 멈추지 않고 폭주하는 지하철을 세우고 슈퍼맨이 추락하는 비행기를 무사히 착륙시킴으로써 수많은 인명을 구한다면, 도민준은 순간이동을 해서 절벽으로 떨어지려는 천송이의 차를 맨손으로 세워 그녀를 구한다(<장면 1>). 무엇보다 천송이가 루머로 인해 욕을 먹고 심지어 누군가를 자살하게 만들었다는 음해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서 그녀의 매니저가 되어 그녀의 걸을 지킨다. 이 때 대학 강사로서 도민준의 삶

21) 박수하는 어릴 적 장혜성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고, 도민준은 400년 전 어린 과부(천송이의 전생)를 위기에서 구하지만 결국은 그녀를 살리지 못한다. 이 같은 과거의 운명은 각각 10년과 400년이 지나 계속된다.

은 사라진다. 도민준의 세상은 온통 천송이를 중심으로 돌아가며, 직장직업도 사랑 앞에선 의미를 갖지 못한다.



〈장면 1〉 순간이동 후 천송이의 차를 세우는 도민준 (7회)



〈장면 2〉 서로를 위해 칼을 맞은 박수하와 장혜성 (9회)

마치 슈퍼맨처럼 초능력을 이용해 천송이를 구하는 도민준과 달리 박수하가 여성 주인공 장혜성을 지키는 모습은 보다 인간적이다. 박수하는 장혜성을 지키기 위해 살인자가 되려고 하지만, 민준국을 칼로 찌르려는 순간 장혜성이 대신 맞는다(<장면 2> 상). 박수하가 살인범이 되지 않게 지켜준 것이다. 이어 민준국이 칼로 찌르려고 하자 이번에는 박수하가 대신 맞으며 장혜성을 보호한다(<장면 2> 하). 박수하의 초능력은 장혜성을 지키기엔 약하고 유용하지도 않다. 그래서 그는 온몸으로 그녀를 지켜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하의 하나밖에 없는 초능력, 즉 타인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은 소통 부재의 현실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장혜성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박수하의 초능력은 여성 시청자들에게 매력적인 능력으로 다가온다. 이 같은 매력은 도민준에서도 찾을 수 있다. 늑대의 청력을 가진 그는 벽 너머로 천송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말하지 않아도 여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말하기 전에 행동하는 박수하와 도민준의 초능력은, 일일이 말을 해줘야 알고 심지어 말을 해줘도 모르는 현실의 애인이나 남편들에게 여성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이처럼 초능력자인 박수하와 도민준은 기존 할리우드 영화 속 초능력자들처럼 전 지구적 위기와 맞서 인류를 구원하는 공공의 영웅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그들의 초능력은 지극히 한 여성을 위해 그 여성의 테두리 안에서 발휘된다. 그리고 박수하와 도민준은 그 여성의 영역 안에 머물기 위해 공적 영역을 버리고 ‘은둔형’ 초능력자가 된다. 도민준은 초능력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제도권(법적 영역)을 벗어나며 이미 영웅이기를 거부한다. 박수하는 학교라는 제도권의 밖에 위치한다. 그래야 장혜성과의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등학생과 성인 여성의 사랑은 정서적으로 허용되지 않기에 박수하는 교복을 벗고 제도권 밖에 위치하는 것이다. 제도권, 즉 공적 영역 밖에 위치한 그들은 사랑이라는 사적 영역에 머무른다.

한 여성을 위해서만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여성 시청자의 욕망이 투영된 바이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사랑이라는 사적 욕망보다 사회에서 업적을 쌓는 공적 욕망이 더욱 강하다. 공공의 영웅이 되기 위해 사랑을 희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묵묵히 견디어 주는 여성의 희생이야말로 남성들의 욕망이 반영된 판타지이다. 그런데 그러한 남성 판타지에서 사랑은 완성되기 어렵다. 때문에 여성 장르라 할 수 있는 멜로드라마에서는 남성의 공적 욕망을 거세한다. 멜로드라마 속 남성 주인공들에게는 남성의 욕망이 아니라 여성의 욕망이 투사되며, 이로써 초능력자인 박수하와 도민준에게 부여된 것은 공공의 영웅이 아닌 오직 한 여성만을 향한 ‘순정남’의 역할이다. 그 역할을 위해 그들은 ‘은둔형’의 초능력자로 그려진

다. 여성 시청자들은 여성 주인공에게 동화되면서 그들의 순정을 상상적으로 즐기게 된다. 앞 절에서 논의한 어린 혹은 불로의 연하남을 향한 여성 시청자들의 시각적 즐거움은 초능력자 남성의 순애보적인 사랑을 통해 상상적 즐거움으로 이어진다. 여성들을 지배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는 바로 정서/감정이다. 외모와 능력을 모두 갖춘 젊은 남성 주인공의 상대역 자리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상상적 즐거움은 시각적 즐거움보다 더욱 여성의 정서/감정을 자극한다.

한편, 도민준의 초능력이 철저히 천송이의 영역 안에서 발휘되는 반면 박수하의 초능력은 억울한 이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발휘되기도 한다. 박수하의 초능력은 공적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보인 것이다. 오로지 벽 너머 천송이의 소리만 듣는 도민준에 비해 박수하는 세상과 타인의 소리를 듣는다. “당신은 수족관에 가봤나요? 난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나의 세상은 너무 시끄러운데 그곳에 가면 세상이 조용하고 평온할 것 같습니다.”(8회) 박수하의 이 같은 말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듣는 것에 멈춘다는 것이다. 자신의 세상이 너무 시끄럽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박수하는 타인의 속내를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들리는 것뿐이다. ‘듣는 것’과 ‘들리는 것’은 능동성과 수동성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도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그가 능동적으로 타인의 속내를 읽고 그로 인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장혜성 때문이다. 장혜성을 보호하거나 그녀가 재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가 움직인 것이다.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려는 박수하의 시도는 드라마 마지막에 그가 뜬금없이 경찰대학에 입학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 사람 때문에 전 누군가를 지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전 아마 좋은 경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18회) 이 같은 박수하의 말처럼, 드라마 너머에서 그는 좋은 경찰이 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장혜성의 남자로서’ 당당하기 위해서라는 사적 동기는 순수성과 진정성을 상실한다. 그렇게 박수하 역시 멜로드라마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박수하가 멜로드라마의 틀 안에 갇혀 있는 반면, 오히려 여성 주인공인 장혜성이 그 틀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대신한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타인의 속내를 읽어내는 능력이란, 거짓과 소통 부재의 사회가 만들어내는 갈등의 표현²²⁾이라 한다면, 남성 주인공의 초능력이 은유하고 있는 이러한 갈등은 남성 주인공이 아닌 여성 주인공을 통해 해소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박수하의 내레이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세상을, 관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건 진실보다 거짓일 때가 많다. 거짓은 잠시 갈등을 봉합하고 불안을 잠재운다. 진실은 거짓보다 불편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싶어 한다. 진실을 전하는 건 늘 고통스럽다. 그래서 나는 진실 앞에서 눈을 감는다. 그러나 어느새 나의 잔 다르크는 진실을 보는 나보다 더 진실을 좇고 있었다. (14회, 밑줄·인용자)

“편하니까” 국선 전담 변호사가 되었다며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겠다, 대충 선처해 달라고 몇 마디만 하면 땡이겠다, 완전 거저먹기”라고 말하던 장혜성은 “이 나라에서 피해자네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따질 수 있게 된다. 마지막 회에 장혜성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줄 겁니다. 당신의 입장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국선 전담 변호사입니다.”(18회) 박수하를 마주한 채 흘러나오는 장혜성의 이 같은 내레이션에서, ‘당신’은 박수하를 향한 2인칭 ‘단수가 아니라 시청자를 향한 2인칭 ‘복수이다. 남성 주인공의 관심이 오직 여성 주인공 단수에 갇혀 있는 것과 달리 여성 주인공의 관심

22) 정덕현, 「슈퍼히어로, 어쩌다 소시민이 됐을까」, 『이투데이』, 2013.12.31.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45842>, 2018.7.31검색)

은 시청자를 내포한 복수로 확대된다. 초능력자 남성 주인공 대신 불완전한 여성 주인공이 성장하면서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는 시도를 한 것이다. 장혜성의 이 같은 성장이 소통을 상징하는 박수하의 초능력에서 기인하였다는 점은 유의미하다.

3. 남성 주인공에게 부여된 초능력 판타지의 의미와 한계

판타지는 더 이상 드라마 시청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 여성 시청자들은 보다 완벽하고 멋지고 잘난 남성 주인공을 보기 위해 ‘현실에 있을 법한’이라는 틀을 고집하지 않는다. 시청자는 “멜로드라마를 보며 자신의 현실과의 관련 속에서 받아들일 만큼만 받아들이기 때문”²³⁾이다. 여성 시청자들은 멜로드라마 속 남성 주인공(과 같은 남성)을 만나 사랑할 수 있다는 헛된 기대는 하지 않는다. 멜로드라마는 그저 환상극장이라는 인식을 이미 여성 시청자들의 마음에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시청자들이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환상을 통한 대리만족을 원할수록, 멜로드라마의 남성 주인공은 더욱 더 멋지고 완벽하고 특별하게 그려져야 한다. 이에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별에서 온 그대>는 초능력이라는 판타지를 활용한다.

두 드라마에서 남성 주인공은 초능력이란 판타지와 결합해 여성 시청자들에게 더욱 더 이상화된 남성상을 제공한다. 박수하와 도민준은 낮은 초능력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익숙한 인간(남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한 시각적 이미지 사이에서 발생한 “망설임”²⁴⁾은 멜로 정서가 강해짐

23) 윤석진, 앞의 책, 42면.

24) 츠베탕 토도로프에 따르면 환상은 “자연법칙만을 알고 있는 한 존재가 겉보기에 초자연적인 사건에 직면하여 경험하는 망설임이다.” Tzvetan Todorov, 최애영 옮김, 『환상문학 서설』, 일월서각, 2013, 53면.

에 따라 익숙한 인간(남성)의 이미지로 기울어진다. 판타지를 통해 낯선 자극을 만들어내지만 멜로 장르가 그것을 포섭함으로써 그러한 낯섬은 익숙함에 전유되는 것이다. 또한 어리고, 심지어 영원히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는 남성 주인공들은 초능력이라는 판타지를 덧입고 어른 남자로 탈바꿈한다. 기존 멜로드라마의 남성 주인공이 어른 이미지에 고착된 것과 비교할 때 낯선 자극을 만들어낸다. 그 낯선 자극 역시 초능력을 지닌 능력자이면서 오로지 한 여성만을 사랑하는 지고지순한 순정남에 의해 멜로드라마로 귀착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두 드라마에서 남성 주인공의 초능력은 오직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 발휘되고 공적 영역으로 확산되지는 않는다. 남성 주인공은 공적 영웅이 되는 대신 한 여성을 향한 순정남이 되는 것을 택한다. 초능력이 공적 영역과 만나는 순간 사랑의 안정과 질서는 흔들리고(여성의) 멜로 서사는(남성의) 영웅 서사로 탈바꿈된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별에서 온 그대>는 초능력자 남성 주인공이 사적 테두리 안에 머물면서 멜로 서사를 유지한다. 이로써 여성 시청자들의 낭만적 사랑에 대한 환상과 욕망을 수호한다. 텔레비전 멜로드라마의 주 소비자인 여성 시청자들의 영향력은 크다. 그녀들의 안정과 질서에 대한 욕망은 드라마의 메시지에 우선한다. 시청률의 숙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특성이자 한계이다. 결국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별에서 온 그대>에서 초능력이라는 판타지는 남성 주인공의 매력을 강화하고, 남녀 주인공의 사랑을 낭만화 혹은 이상화함으로써 멜로 서사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별에서 온 그대>에서 현실을 초월하는 남성 주인공의 초능력은 멜로 장르에 갇혀 오히려 현실의 안정과 질서를 꺾는 수단으로 전락한다. 지금부터 두 드라마에서 악역을 담당하는 남성 조연, 민준국(정웅인 분)과 이재경(신성록 분)을 통해 초능력을 지닌 남성 주인공들이 결국 현실의 테두리 안으로 회귀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민준국을 보자. 그의 악은 복수심에서 비롯된다. 민준국은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포장마차를 하면서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한 성실하고 착한 서민이었다. 그런데 수술만 하면 아내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순식간에 도둑맞는다. 박수하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박수하의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민준국의 아내에게 돌아갈 심장을 빼돌렸고, 그 바람에 예정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한 민준국의 아내는 숨을 거둔 것이다. 희망을 도둑맞고 분노한 민준국은 박수하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감옥에 들어간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남겨진 그의 어머니와 아들마저 아사(餓死)하면서, 평범한 서민이던 민준국은 잔인한 “짐승”이 된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가는데 증인으로서 결정적 역할을 했던 장혜성에 대한 복수심으로 그녀의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녀의 주위를 끊임없이 맴돈다. 그런데 민준국이 정작 바란 것은 장혜성에 대한 복수보다 소중한 것(장혜성)을 잃었을 때 박수하 또한 자신과 똑같은 “짐승”이 되는 것이었다. “너는 단지 짐승, 살인자”라는 박수하의 말에 민준국은 이렇게 응수한다. “난 이렇게 짐승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나도 너처럼 사람이었다”라고 신자유주의 체제는 점점 더 양극화를 만들고 그 속에서 약자는 점점 더 소외되어 간다. 그런데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는 가진 자의 술수에 희망을 도둑맞고 짐승이 되어버린 약자의 분노와 그로 인한 복수를 단지 사적인 복수로 그리고 있다. 무엇보다 민준국의 사적 복수는 사회 대다수 구성원들이 용인할 수 있는 절차적 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난하고 법적 처벌을 두둔한다. 그렇게 민준국을 ‘약(弱)’이 아닌 ‘악(惡)’으로 규정해 버림으로써 정작 모든 것의 근원인 사회구조의 모순은 은폐된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강자인 서대석(정동환 분)보다 약자인 민준국을 악역/반동인물의 중심에 놓은 것은 그래서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강자가 자신의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악을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응징은 시청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약자가 약자라는 이유로 가진 것을 빼앗기고 그에 분노하여 악을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응징

은 아쉬움과 답답함을 동반한다. 정작 본질인 잘못된 사회구조를 간과한 이 같은 설정은,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별에서 온 그대>보다 사회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지점이다. 박수하는 장혜성과 약속한대로 민준국과 똑같은 짐승이 되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이성을 놓지 않은 박수하는 민준국을 잡고 장혜성을 구하기 위해 경찰(법)과 연계한다. 법 앞에 인간은 평등하지 않음을 보여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법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다.

한편,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는 제2 남성 주인공 차관우도 주목할 만하다. 민준국의 변호를 맡으며 진심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준 차관우는 박수하처럼 사람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을 갖진 못했지만, 사람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들어주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 회에서 차관우가 서도연(이다희 분) 검사에게 박수하와 민준국의 차이를 아느냐며 이렇게 말한다.

민준국은 아무도 없었어요. 민준국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도, 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그리고 그가 지켜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한 사람만 있었다라도, 민준국은 다르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박수하처럼요. 그래서 난 민준국이 아주 조금은 불쌍합니다. (18회)

차관우처럼 드라마 전체가 좀 더 민준국에게 귀 기울였다면,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사적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공적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박수하의 초능력이 멜로드라마의 자장 안에 머물면서 사랑의 메시지가 공적 메시지를 전유하고 멜로드라마의 스펙트럼을 확장시킬 따름이다.

다음으로 <별에서 온 그대>의 악역이자 반동인물인 이재경을 보자. 재벌 후계자인 그는 유능한 경영인처럼 보이지만 그 가면 속에 가려진 그의 정체는 연쇄 살인범이자 소시오패스이다. 그는 자신의 앞길에 방해

된다고 생각하면 누구든 아무렇지 않게 살해한다. 이재경은 후계자가 되기 위해 친형마저도 살해하는데, 이는 후계자에만 모든 사랑을 주는 아버지 이범중(이정길 분)의 차별에서 기인한다. 또한 “내가 어렸을 때 네 친구의 한쪽 눈을 실명하게 했을 때 돈으로 무마하는 게 아니었다.”(21회)라는 아버지 이범중의 말을 통해 이재경이 “짐승”이 된 이유가 아버지(의 잘못된 교육)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민주국과 달리 이재경의 악은 사적, 심리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재경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천송이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때마다 도민준은 초능력을 이용해 그녀를 구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도민준이 자신의 초능력을 이용해 충분히 이재경을 처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그를 응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민준은 유석(오상진 분) 검사와 박 형사(김희원 분)와 연계하여 이재경을 법적으로 처벌한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악인을 벌하는 과정에서, 초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박수하와 도민준은 결국 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박수하의 경우 타인의 속내를 듣는 초능력만으로 민주국을 응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도민준은 그의 초능력으로 충분히 이재경을 응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합법적으로 이재경을 해결한다. 현실을 초월하는 그들이 법을 초월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현실의 테두리로 들어온 것이다. 이 같은 초능력자 남성 주인공의 마지막 선택은, 어떠한 부당한 상황에서도 사회구조에 반(反)하지 말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고, 모든 것은 법이 용인하는 범위 안에서 해결하라는 보수적 메시지를 내포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두 드라마는 판타지를 통해 현실을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한 개인에 온전히 자신을 던지는 운명적 사랑에 충실한 슈퍼히어로는 그래서 굉장한 판타지를 제공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다지 건강한 존재일 수는 없다”²⁵⁾는 지적처럼, 두 드라마에서 남성 주인공에게 부여된 판타지인 초능력은 여성 시청자들에게 더욱 멋진 남성상을 소개하는데 기여할

뿐 사회적 메시지를 생산하지는 못한다. 결국 멜로드라마에서 판타지는 현실 전복과 개조의 메시지를 담아내기 어려운 것이다. 사랑의 완성이라는 해피엔딩을 지향하는 멜로 관습이 전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판타지가 멜로 장르와 결합했을 때 판타지의 전복성은 멜로 장르의 안전성과 보수성에 의해 전복/전유되는 것이다.

텔레비전 멜로드라마는 초능력을 지닌 남성 주인공을 통해 신자유주의 체제 여성 시청자들이 욕망하는 보다 멋지고 완벽한 남성상을 재현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판타지와 결합한 멜로드라마 속 남성 주인공의 캐릭터는 완벽한 남성상답게 진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같은 문제제기에서 본고는 시작되었고, 마지막으로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기로 하자.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별에서 온 그대>에서 초능력자 남성 주인공 박수하와 도민준은 연하남의 이미지를 통해 여성들의 ‘(영원한) 젊음’에 대한 욕망을 투영하고, 순정남의 이미지를 통해서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욕망을 투영하면서 여성 시청자들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상상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남성 주인공들은 초능력이란 판타지와 결합해 보다 매력적인 남성상을 제공하며, 이로써 판타지는 멜로드라마의 변주를 위한 장치로 작동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들의 초능력은 한 여성만을 향하지고지순한 순정남을 형상화하는 데만 기여한다. 이처럼 멜로 장르의 관습에 전유된 판타지는 전복성을 상실할 채, 오히려 멜로 장르의 안전성과 보수성에 의해 현실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다.²⁶⁾ 결국 멜로드라마의 남성 주인공에게 부여된 초능력이란 판타지는 기존 캐릭터와 크게 구별되는 지점을 생산하지 못한 채, 캐릭터의 진화보다는 캐릭터의 변주 및 확장을 야기한다.

25) 정덕현, 앞의 글.

26) “판타지는 위반과 전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보수적인 감정 구조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박명진, 「기계/기술적 대상’에 대한 공포와 판타지의 정치적 무의식-TV드라마 〈환상 거탑〉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52집, 한국극예술학회, 2016, 211면.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박혜련 극본, 조수원 연출, <너의 목소리가 들려>, SBS, 총18부작, 2013.6.5.~2013.8.1.
박지은 극본, 장태유 연출, <별에서 온 그대>, SBS, 총21부작, 2013.12.18.~2014.2.27.

2. 단행본

- 유지나 외, 『멜로드라마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9.
윤석진, 『한국 멜로드라마의 근대적 상상력-멜로드라마, 스캔들 혹은 로맨스』, 푸른사상, 2004.
이영미, 『한국인의 자화상 드라마』, 생각의나무, 2008.
주창윤, 『영상 이미지의 구조』, 나남, 2015.
진경아, 『매체 미학과 영상 이미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최기숙, 『환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홍석경, 『세계화와 디지털 문화 시대의 한류』, 한울아카데미, 2013.
Hume, Kathryn, 한창엽 옮김,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
Jackson, Rosemary,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4.
Rushton, Richard & Bettinson, Gary, 이형식 옮김, 『영화이론이란 무엇인가』, 명인문화사, 2013.
Todorov, Tzvetan, 최애영 옮김, 『환상문학 서설』, 일월서각, 2013.

3. 논문 및 기타

- 김모세-서종석, 「<별에서 온 그대>에 나타난 욕망의 형이상학-르네 지라르의 욕망이론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제46집, 한국기호학회, 2016.
박명진, 「기계/기술적 대상에 대한 공포와 판타지의 정치적 무의식-TV드라마 <환상 거탑>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52집, 한국극예술학회, 2016.
박은아, 「TV드라마 속 남성 캐릭터 연구 : <별에서 온 그대> 인물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백경선,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에 나타난 판타지의 유형과 의의」, 『한국문예비평 연구』 제58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8.
- 이여진, 「TV 판타지드라마의 장르혼합 양상 연구.<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주군의 태양>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정덕현, 「슈퍼히어로, 어쩌다 소시민이 됐을까」, 『이투데이』, 2013.12.31.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w.php?idxno=845842>, 2018.7.31검색)
- 조용상·김혜정, 「중국 내 한류 드라마의 스토리와 캐릭터 분석.<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를 중심으로」, 『글로벌컬처의문화연구』 제7집, 글로벌컬처의산업연구센터, 2016.
- 최지운, 「로맨스드라마 속 남자주인공의 재력 획득 방법 분류 및 함의 연구」, 『영상문화콘텐츠연구』 제13집,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2017.
- 황효진, 「<시크릿 가든>부터 <W>까지, 이종석의 판타지」, 『아이즈(ize)』, 2016.8.11. (<http://ize.co.kr/articleView.html?no=2016080800077249790>, 2018.7.31검색)

Abstract

The Male Main Characters with Supernatural Power and The
Expansion of Melodrama Characters

— Based on Television-drama <*Neoui Moksoriga Deulryeo*> &
<*Byeoleseo On Geudae*>

Baek Kyungseon

Television melodrama is representing more perfect male image that female viewers desire in neoliberalism throughout male main characters with supernatural power. By the way, could we tell that male main characters with fantasy in melodrama evol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get the conclusion on approaching this issue.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first I examined how male main characters of *Neoui Moksoriga Deulryeo* (*I Hear Your Voice*) and *Byeoleseo On Geudae* (*My Love from the Star*) embody the ideal male image that female viewers desire. Then, I considered what is the meaning and limit of fantasy granted to male main characters in melodrama. In both dramas, male main characters with supernatural power are first portrayed as younger men of a young age image, reflecting women's desire for 'youth.' Also, women's desire for 'romantic love' is reflected through the reclusive, innocent man image that only dedicate female characters. As the object of this desire for women, the male main characters with supernatural power provide visual and imaginative pleasure to female viewers. Meanwhile, supernatural power of male main characters remains private romance territory without expanding public territory. The supernatural power of male main characters in the melodrama is appropriated by convention of melodrama genre without showing subversion.

Eventually, it was concluded that the male main characters with supernatural power cause

more variations than evolution of male main characters in the melodrama, and were being used as a device for variations and expansion of melodrama genres.

Key Words: *Byeolleseong On Geudae(My Love from the Star)*, Fantasy, Female's Desire, Imaginary pleasure, Male Main Character, Melodrama/Romance-drama, *Neoui Moksoriga Deulryeo(I Hear Your Voice)*, (reclusive) Pure-hearted Man, Supernatural Power, Television Drama, Visual Pleasure, Younger Man/Juniority

접 수 일: 2018년 8월 7일

심사기간: 2018년 8월 11일 - 8월 25일

게재결정: 2018년 9월 7일